

# ARARIO GALLERY

1. 전시제목: 그녀의 몸들: 신디 셔먼 & 바네사 비크로프트  
HER BODIES: Cindy Sherman & Vanessa Beecroft
2. 전시기간: 2004. 9. 1(수) ~ 2004. 11. 21(일)
3. 참여작가: 신디셔먼(Cindy Sherman; born Glen Ridge, New Jersey, 1954)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 born Genoa, Italy, 1969)
4. 문 의: 전화 041 551 5100~1 팩스 041 551 5102  
[www.arariogallery.com](http://www.arariogallery.com)
5. 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6. 전시컨셉:

아라리오 갤러리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11월 21일까지 신디 셔먼과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작품을 함께 모아 전시하는 <그녀의 몸들: 신디셔먼 & 바네사 비크로프트(*Her Bodies: Cindy Sherman & Vanessa Beecroft*)>전을 가진다. 15년의 나이 차이를 가진 작가 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라리오가 이 두 여성 작가의 작품을 한 전시로 묶어 보여줄 수 있게 된 계기는 그들의 작품이 모두 여성의 몸을 기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화장, 가발, 의상 등의 다양한 활용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 시키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작품을 제작하는 신디 셔먼은 동시대 여성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작가 중 한 명이다. 셔먼의 작품들은 영화, 사진, TV, 미술 작품 속에서 재현되는 여성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하는 듯 싶다. 하지만 정확한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은 한 점도 없는데, 이처럼 셔먼은 어디선가 보았을 법한 인물들을 연출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관객으로 하여금 그 인물들의 외적인 이미지 뒤에 가려졌을 법한 개인적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셔먼은 재현 체계 속에서 왜곡되어 온 여성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은 그녀를 여성 미술사에 있어 가장 유명하며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다. 무제 필름 스틸, 역사 인물 초상, 패션, 크라운 시리즈 등 이제까지 약 430여 작품을 제작해 온 그녀의 작품들 중, 가장 초기 작품인 1976년도 작 <미스터리 살인극 속 인물들 Murder Mystery People> 17점 세트를 포함하여, 역사 인물 초상 시리즈 중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무제 #224 Untitled #224>, 패션 시리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무제 #125 Untitled #125>, 그리고 가장 최근 시리즈이자 셔먼 작업사 최초로 여러 명의 인물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 광대 시리즈 <무제 #425 Untitled #425> 까지. 이번 전시는 셔먼의 다양한 시리즈들 중 가장 좋은 작품들만을 엄선하여 전시함으로써 한국 관객들에게 셔먼의 작품 세계를 전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모델 드로잉 보다는 실제 모델이 작품으로서 더 흥미롭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52회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가져온 바네사 비크로프트는 가장 유명한 동시대 여성 작가 중 한 명이다. 회화 같기도 조각 같기도 한 그녀의 작품은 벗은 몸 자체가 하나의 조형적 특성을 지니며 전체 구성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누드 퍼포먼스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장과 가발, 하이힐, 브라, 팬티와 같은 의상에 의해 완벽하게 꾸며진 누드 모델들이 피로에 지쳐 쭈그려 앉거나 눕기 시작 할 때, 모델들의 벗은 몸은 더 이상 눈요기거리가 아닌 거짓, 혹은 왜곡 없는 그저 벗고 있는 몸이 된다. 꾸며진 몸에서 거짓없는 몸으로. 여기에 바네사 비크로프트 퍼포먼스의 전략이 있다. 사진과 비디오 작품으로 남겨지는 그녀의 작품들 중, 아라리오 갤러리에는 작가의 의붓 자매를 모델로 한 <시스터 캘린더 Sister Calender>, VB45, VB47, VB48, VB52 등 사진 작품 총 2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에서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퍼포먼스가 한번도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는 다방면으로 그녀의 퍼포먼스 기획을 검토 하였으나, 누드 퍼포먼스에 대한 국내 인식 부족과 작가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실제 퍼포먼스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VB48을 기록한 비디오 작품이 전시되기에 실제 퍼포먼스가 주는 감흥을 갤러리를 찾는 모든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작가 자신의 몸을 소재로 삼는 신디 셔먼, 그리고 여성 모델들의 몸을 소재로 삼아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바네사 비크로프트. 전시를 찾는 모든 관객들이 셔먼과 비크로프트의 작품, 총 55점들을 대하며 단순히 작품의 이미지 보다는 그 이미지 속에 작가들이 담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그녀의 몸들: 신디 셔먼과 바네사 비크로프트>전을 오픈한다.

## 7. 전시 작품 리스트

Artist name	Title	Year	size	material
CS	Murder Mystery (17점 한세트)	1976-00	25.4x20.3cm	photograph
	Untitled #351	2000	30x20 in.	photograph
	Untitled #352	2000	27x18 in.	photograph
	Untitled #353	2000	36x24 in.	photograph
	Untitled #354	2000	36x24 in.	photograph

	Untitled #355	2000	36x24 in.	photograph
	Untitled #356	2000	30x20 in.	photograph
	Untitled #357	2000	30x20 in.	photograph
	Untitled #358	2000	30x20in.	photograph
	Untitled #359	2000	30x20 in.	photograph
	Untitled #360	2000	30x20 in.	photograph
	Untitled #361	2000	36x24 in.	photograph
	Untitled #362	2000	27x18 in.	photograph
	Untitled #95	1981	24x48”	photograph
	Untitled #198	1989	42X28”	photograph
	Untitled #219	1990	65X40”	photograph
	Untitled #224	1990	48X38”	photograph
	Untitled #129	1983	67x45 “	photograph
	Untitled #425	2004	72x93”	photograph
	Office Killer (신디셔먼 제작 영화)	2001	55 minutes	Movie
<b>VB</b>	VBSP(12점 세트)	2000-1	35x64”	Cibacrome Print
	VB45.107.ali	2001	45x55”	Digital C-print
	VB47.378.dr	2001	50x72”	Digital C-print
	VB48.721.dr	2001	45x65”	Digital C-print
	VB48.947.42.pd	2001	50x134”	Digital C-print
	VB48	2001	2시간 30분	DVD

Arario Gallery presents "Her Bodies: Cindy Sherman and Vanessa Beecroft," from September 1st to November 21st, an exhibition whose theme is women's bodies the ways that society looks at them.

Cindy Sherman, one of the most prominent contemporary artists, has been photographing herself as different characters disguised in a variety of make-ups, wigs, and costumes since the mid 1970s. Some have assumed that her choices of roles are direct appropriations of images from movies, TV, magazines, and even art. However, there is none of her works having a particular reference. Rather, Sherman, by composing photos of women that we feel we have seen elsewhere, points out stereotypes and makes us to fantasize about their personal lives beyond the images on her photos. In more than 400 works, including the series "Untitled Film Stills," "History Portraits," "Fashion," and "Clowns," Sherman has sought to overcome the limits of images of women that our male-dominated society's value system has distorted, making her one of the most famous and important artists in contemporary art. Arario Gallery presents 35 of Sherman's works, including photos from her earliest series, "Murder Mystery People," to her latest series, "Clowns" -- an opportunity for Koreans to get a good taste of Sherman's oeuvre in one space.

Vanessa Beecroft has also established herself as an important contemporary artist, in more than 50 live performances since 1993, the year she discovered that live models as artworks interested her more than the drawings she drew from them. Her work involves naked or scantily clad groups of women, each of whose bodies brings a plastic quality to the entire ensemble that evokes both painting and sculpture. During the hours-long performances, the models, often fully adorned with identical outfits of body makeup, wigs, high heels, brassieres and panties, get more and more tired and begin to squat or lie down. As their bodies slowly pass from order to chaos, they gradually become bodies without disguise, loose their "to-be-looked-at-ness," and shut down the spectator's visual pleasure. This is the strategic essence of the performance, the transition from disguised nudity to truthful nakedness.

Arario Gallery is featuring around twenty photographs and a video work documenting her performance, including "VB47," "VB45," "VB48," and "VB52," and one of her special projects, "The Sister Calendar," in which the artist's stepsister is the model. Arario is pleased to be the first to present a Beecroft performance in Korea, albeit a videotaped one. Although the artist, for personal reasons, was unable to organize a live performance, this is perhaps for the best, since one wonders if Korea is ready for one. As for the presentation of the video "VB 48," Arario Gallery is already bracing itself for a certain tumult.

Cindy Sherman constantly presents her own disguised body playing a variety of women's roles and characters. Vanessa Beecroft, on the other hand, creates performances that, through the passage of time, change female nude models meant to be seen into humans exposed to their own physical tedium and pain. On behalf of the gallery, I am pleased to present "Her Bodies: Cindy Sherman and Vanessa Beecroft" with the hope that you will appreciate the 55 works of these two artists and see them not just for their art images, but for the stories contained in them.